

# 금호석유화학, 태양광 사업 진출

사업목적에 제조·가공·매업 추가 ... 사업규모·범위는 확정 못해

금호석유화학은 사업목적에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발전 관련 제조, 가공, 매매업 등을 추가했다고 3월 12일 발표했다.

다만, 태양광 관련 초기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범위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1971년 여수 제1에너지 설립과 함께 열병합발전을 통한 에너지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다. 현재 총 2개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며 시간당 스팀 1130톤과 전기 186MH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4년까지 시간당 스팀 700톤과 전기 145MW를 생산할 수 있는 3번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2>